

대학생 대상 실용금융교육의 효과 평가 : Kirkpatrick 모형을 중심으로*

고 인 목**, 강 지 영***

국문초록

향후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시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Kirkpatrick 모형을 이용하여 반응(reaction), 학습(learning), 행동(behavior), 결과(result) 등 4단계로 평가하였다. 반응 면에서 강의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6, 교수 만족도가 4.26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2단계 학습의 경우, 객관적 금융역량이 실용금융교육 후 유의하게 +3.55점 상승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금융역량 상승에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행동 면에서는 과소비 행동이 교육 후 감소하였으나,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7년 1학기에만 유의하여, 행동 개선에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결과면에서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자기 과신 정도가 다소 증가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과소 평가하는 학생의 비율 또한 줄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실용금융(personal practical finance), 금융교육, Kirkpatrick모형, 교육효과평가, 대학생

□ JEL : A23, G53, I21

투고일: 2020. 1. 30.

수정일: 2020. 9. 21.

게재확정일: 2020. 10. 27.

*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의 독립적인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現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상무이사 (前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1. 서론

1-1. 연구배경

오늘날의 금융시장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이 빠르게 개발·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상품이 국경 간의 경계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금융시장의 특징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거에 비해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2019년 DLF 불완전판매사태 등 일련의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발생을 되돌아볼 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 부담은 크게 증가되었으며, 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에는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책으로 각종 법규와 제도 등의 정책적 정비와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으로서 금융소비자교육에 힘쓰고 있다(안수현·곽수현, 2013).

OECD는 2005년 금융교육에 관한 첫 보고서「Improving Financial Literacy」를 통해 금융시장이 정부나 기관에서 개인과 가계로 재무관리의 위험을 이전시키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는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OECD, 2005). 이에 2008년 OECD 산하에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금융교육 확대와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2년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나라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적극 수행할 것을 권고한 후, 2015년에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융교육 국가전략이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 중에 있는 나라가 총 64개국¹⁾이었고, 이 중 11개국은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1차적으로 추진 후, 실제 소비자 반응 및 결과 등을 반영하여 2차 개정 전략을 수립 또는 추진하고 있다(OECD, 2015a). 한편, OECD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지정하여 2012년부터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²⁾ 선택 영역에 포

1) 우리나라는 OECD 자료에 금융교육 국가전략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2)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고자 각국 교육 체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교육 정책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참여 중임

함시킴으로써(조지민·천규승·김경모, 2014) 장기적인 금융교육 인프라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³⁾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에 최초의 거시적인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⁴⁾을 마련한 이후 격년마다 구체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6년 금융교육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⁵⁾을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의 토대를 갖추었고, 2019년에는 금융교육 TF팀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시스템화 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국회에 최초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교육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조만간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밑바탕으로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 및 추진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으며, 기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금융교육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OECD/INFE(2012)가 금융교육 효과의 증진과 효과 평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표한 5개의 준칙에 따르면 평가를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살펴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예산 마련, 독립적인 외부 평가자의 이용,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을 공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전반을 추진 주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본 준칙의 내용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OECD/INFE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국민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의 변화 추이를 통해

3) 정부부처(금융위원회,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유관기관(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업계(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탁중앙회), 전문가·학계(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연구원, YWCA)로 구성

4) '일관적,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 구축',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

5) 김자봉, 노형식,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6

전반적인 금융교육의 효과를 알 수도 있으나,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교육 추진시 효과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알맞은 평가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OECD/INFE, 2012).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5년 이상 금융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기회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금융교재나 교구 등도 꽤 축적되었다. 그러나 개별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발전 및 확장시켜 나가기보다는 유사한 신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공급해온 측면이 있으며, 실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증가나 만족도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추진하기에 편리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이 집중되어온 경향도 눈에 띈다. 이로 인해 대상 면에서는 청소년이나 군장병 위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3.9.4. ; 금감원, 2018), 교육방법 면에서는 강의식 교육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 예산 등 자원의 확보가 불안정하고 비판받기 쉬운 상황이다.

최근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금융교육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학자들은 금융 지식 중심의 금융교육으로는 인간의 편향(bias)을 교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자기과신 성향을 부추겨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연구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Wills, 2008). 그러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나 금융규제의 대체 수단이 아닌 보완적 수단이며(보험연구원, 2010), 인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이다. 다만 교육의 효과 측정이 결여된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금융지식 향상을 넘어선 태도와 행동 교정에 효과적인 우수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금융교육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상당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이 될 경우,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금융교육의 효과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금융교육 효과를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실시한 수강생 대상 금융역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대학생은 재무적으로 종속기에서 독립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 때 형성된 재무태도와 지식 및 습관 등이 사회진출 후 성인기의 본격적인 재무활동과 곧바로 연결되므로(최현자·조혜진, 2011; Peng, Bartholomae, Fox and Cravener, 2007)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3개 대학에서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의 개발을 통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을 수립하였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희망 대학에 학점이 이수되는 정규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교육을 편성하여 한 학기에 15회 이상 연속 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매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 전·후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여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여타 다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그 내용이 훌륭하고 호응도가 높음에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점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용금융교육은 첫 시작부터 교육 효과 평가를 운영 요소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왔으므로 시중의 프로그램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효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적합해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육효과 평가에 적용되어온 Kirkpatrick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Kirkpatrick은 특정 교육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반응(reaction), 학습(learning), 행동(behavior), 그리고 추진 조직 측면의 결과(result)를 종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Kirkpatrick and Kirkpatrick, 2008).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교육 수요자의 교육 내용 및 교수 만족도, 객관적인 금융역량의 변화, 소비행동의 개선 여부 및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self-reported)와 자기과신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실용금융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대상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가치를 논의함은 물론 향후 실용금융교육 실행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교육 정책을 개선하거나 신규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하는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절한 평가 방안 수립에 대한 정책적 합의 및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금융교육의 정의

PISA는 OECD(2005)의 정의⁶⁾에 기초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금융상품, 개념, 위험(risk)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보, 교수활동, 객관적 조언 등을 통해 금융위험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과정(이소연 · 성경희 · 김재근, 2019)’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OECD 및 PISA의 금융교육에 대한 개념은 이후 주요 금융교육 연구에서도 다수 차용되었다(Lusardi and Michelli, 2006; Lewis and Messy, 2012; Atkinson and Messy, 2013)

국내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금융교육을 정의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 최현자 · 최은진(2005)은 금융교육을 개인 및 가계 금융관리를 위해 지식과 기능을 얻어 책임감과 경쟁력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 및 경험이라 정의하였으며, 조혜진 · 서지원(2017)은 재무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재정적 위치를 스스로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성영애 · 양세정 · 이희숙 · 차경옥 · 최현자(2006)는 유사개념인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과 금융(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⁷⁾을 비교하면서 재무설계 · 상담 · 교육이 모두 재무적 복지의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동일 목표를 갖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 면에서 설계와 상담이 재무상태의 향상 및 재무문제의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무교육은 재무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능력을 계발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스스로 개

6) OECD(2005)는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을 금융소비자 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 및 개념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위험을 인식하여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 및 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게 함은 물론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정의

7) financial education은 연구자에 따라 금융교육과 재무교육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고은희 외(2019)는 이러한 이유로 금융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며 재무 · 금융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

인재무관리 실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 지향적 촉진 과정으로 정의되는 재무코칭(financial coaching), 돈과 관련한 인지·감정·행동·관계 측면의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재무치료(financial therapy)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으나(조혜진·김민정b·장연주·최현자·이지영, 2015), 금융(재무)교육이 재무적 능력향상과 재무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이 있고, 여타 다른 재무서비스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여러 금융교육의 정의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는 금융교육의 특징은 그 대상이 금융전문가 양성교육과는 구분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이며, 영역 면에서 금융에 대한 지식 등 이해의 제고뿐만 아니라 기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재무적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재무문제 예방을 목표로 하며, 모든 내용을 소비자가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방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실 내에서의 교수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이나 객관적 조언의 제공 등도 교육에 포함된다.

2.2. 금융역량의 개념

금융역량의 향상은 금융교육의 주요 목표로, 연구자에 따라 재무능력(financial capability), 재무역량(financial competency),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금융능력(financial ability)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사 또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가장 빈번히 쓰이는 용어는 금융이해력으로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과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와 행동 양식 및 의식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은행, 2013). 한편 교육계에서는 동일한 financial literacy를 금융소양(또는 문해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다수이다(이소연 외, 2019).

[표1] 금융역량(financial competency)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

금융역량, 재무(관리)역량	financial competency, financial capability
금융이해력, 금융소양(문해력)	financial literacy
금융능력, 재무능력	financial ability

김정현 · 최현자(2011)는 우리나라의 재무관리역량과 척도 및 지수를 개발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역량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역량의 개념, 소비자학에서 논의되어 온 소비자 능력의 개념 및 영국 FSA의 금융능력(financial capability)의 개념을 종합하여 재무역량이 특정 맥락(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소비자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⁸⁾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의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및 환경 요소에도 주목하고 있는 영국의 MAS(Money Advice Service)⁸⁾는 금융역량(capability)에 대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있어 자금관리를 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적인 기술, 지식, 태도, 동기뿐만 아니라 포용적인 금융시스템과 지원적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AS, 2015).

한편, 금융역량의 수준을 실제 측정한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측정한 연구(Lusardi · Michell, 2008; 이의선 · 문정숙, 2014; 박창균 · 연태훈 · 허석균, 2016; Tennyson and Nguyen, 2001; Anderson, Zhan, Scott, 2004), 지식, 태도, 기능을 모두 측정한 연구(김정현 · 최현자, 2011; 최윤나, 2012), 기능 대신 행동(behavior)을 넣어 지식, 태도 행동을 측정한 연구(최현자 · 김정현 2010, 한지형 · 최현자, 2013; OECD/INFE 2013, 2015b; 금감원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1.23., 2019.1.28), 제도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역량의 구성요소로 보아 포함시킨 연구(노혜민 · 손상희, 2017)등 다양하다. 최근 영국의 MAS는 금융역량을 분석함에 있어 정기적 저축이나 자금관리 등의 금융 유능 행동(financial capable behaviors)과 금융 동기, 태도, 기술 및 지식 등을 포괄하는 금융 조력 및 억제장치(financial enablers and inhibitors)로 크게 이원화하여 금융역량을 측정하고 있다(MAS, 2018).

이러한 변화의 경향, 특히 금융행동 자체를 금융역량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서 출발하는 행동경제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D. Kahneman)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직관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고 하였다(Kahneman, 2012). 즉, 금융행동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선행변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천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에 실질적

8) FSA의 금융교육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설립

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금융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동 그 자체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환경 변수를 필수 불가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측정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소비자의 재무복지의 증진을 방해하는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원인이 소비자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환경의 문제인지 등을 밝혀내어 해당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모든 것이 혼합되어 표출되는 소비자의 행동을 금융역량과 동일시 할 경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역량에 소비자의 행동 자체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가령 무의식적인 행동 원리로 습관을 선행변수에 포함시키는 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역량을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제도 속에서 자신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르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능(skill) 등으로 구성된 능력으로서, 관련 제도 및 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제로 정의하려고 한다.

2-3. 소비행동

소비행동이란 구매 또는 소비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과정을 모두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 구매선택은 물론 구매 후 사용이나 처분 행동 등 모든 소비과정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박상미·허경옥, 2012). 소비자는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인식적, 상황적 가치 등 소비가치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데(Sheth, Newman and Gross, 1991), 과연 어떤 소비행동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꼽히는 과소비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로 정의된다(홍은실, 2005). 과소비는 필연적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를 낳으며 저축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준비가 필수 불가결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소비행동으로 꼽힌다. 부채는 저축에 비해 수반되는 비용이 비싼 금융수단으로 과소비가 항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성림, 2005). 이에 재무상담이나 재무설계 등 관련 서비스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도 소비의 질을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소비액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다. 김시월(2015)은 재무상담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소득 대비 총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이 상담 전보다 후에 감소하였고, 저축성향은 증가

합을 보임으로써 재무상담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으며, 오종윤·최현자(2010) 또한 ROTC 임관장교 대상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장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저축률이 높고, 지출 면에서는 변동지출총액 등이 더 적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비행동을 자신의 용돈 등 소득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행동으로 정의하고 실용금융 교육 후 과소비행동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행동의 목적이 소비를 통한 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과소비로 인해 자신의 구매를 후회하거나 불만족하는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꼭 필요한 지출이나 재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과신

소비자의 재무적 성과는 객관적인 현금 관리, 신용관리, 투자 수익률이나 저축률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되기도 하지만 자기 보고나 평가에 근거하기도 한다(이윤희, 2016). 앞서 살펴본 금융역량이 테스트 문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objective) 측정된 지표라면,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역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자기평가(self-reported) 또는 주관적(subjective) 금융이해력이라고 한다. 이 두 값은 유의한 상관관계 있다고 분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관계성이 강하지는 않으며 설명변수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Bernheim, 1998; 이윤희 2015).

한편,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금융태도나 행동에 더 큰 자신감(self-confidence)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이윤희, 2016),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무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주관적 자신감으로 정의하는 연구도 있다(나혜림·조혜진·최현자, 2014). 허경옥(2019)은 재무관리행동 영역에서는 다양한 재무의사결정 상황에서 필요한 재무정보의 획득과 및 획득된 재무정보의 이해와 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성공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높은 재무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무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을 것이며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는데(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축소하고 가계자원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재무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허경옥·김숙, 201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는 금

용소비자가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주관적인 금융역량으로서 성공적인 재무관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무적 자신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감과 자기과신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역량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할수록 자기과신에 가까워지고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허경옥, 2019). 자기과신이란 자신의 역량에 대한 과도한 낙관(overoptimism)이나 과도한 확신(overprecision)으로서(이운호, 2018),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얻은 정보를 과대평가하고 잦은 거래와 투자금액을 증가시켜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Barber and Odean, 2000). 반면, 나혜림 외(2014)에 따르면 자신의 객관적인 금융역량과 비교해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또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위축과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펀드투자 역량을 실제 보다 과소평가한 집단의 펀드투자 관련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불만이나 어려움을 겪는 수준 또한 가장 높았다. 이에 금융교육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즉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자기과신 또는 과소평가 성향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선이 되어야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5. 금융교육 효과의 평가

김자봉·김정한(2017)은 금융교육의 효과를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가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금융역량이 금융교육으로 인해 변화되었는지 여부, 즉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금융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금융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간의 금융역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Tennyson and Nguyen (2001)는 미국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금융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학생들의 금융지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금융교육이 의무교육인 주의 학생이 더 높은 금융지식 수준을 보였다. Bernheim, Garrett and Maki (2001)도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여 졸업 후 30~40대에 더 높은 저축률을 보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증명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천규승(2010)과 이운호(2015)는 금융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비교하였으며, 박종옥(2015) 또한 투자교육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비교하여 주관적인 펀드 지식과 객관적

인 펀드 지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투자교육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주관적 펀드 지식이 높았으나 객관적 펀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이 지식 증진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기 과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두 번째는 동일한 집단에 금융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전과 후의 금융역량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Anderson et al. (2004)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전과 후의 금융지식을 비교한 결과, 교육 후 모든 분야에서 금융지식이 향상됨을 증명하였다. Walstad, Rebeck and MacDonald (201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5개의 금융교육 비디오 시청 전과 후의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영상에서 교육 효과가 검증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의선·문정숙(2014)이 금융교육이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행동경제학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응하여 3가지 교수학습방법에 기반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적용 후, 사전 금융이해력과 사후 금융이해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하였다. 김민정^a·이희숙·김효심·곽민주(2012)는 대학교에서 개인재무관리 관련 금융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학기 시작점과 종료 시점에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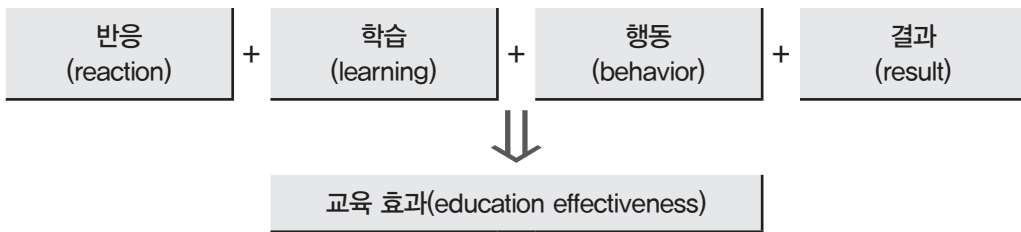
첫 번째 방식이 대부분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면, 두 번째 방식은 특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식을 차용하고자 한다.

한편, 금융교육의 효과를 금융역량의 차이나 변화에 한정하여 측정할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금융지식이나 태도, 행동 등 금융역량의 지표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변화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안창희·정순희, 2009; 권인탁, 2017), 사실상 금융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복지(well-being)에 있으므로, 가시적인 행동의 변화 등이 없어도 소비자 내면의 만족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등 여러 분야의 교육효과 평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Kirkpatrick 모형의 경우, 금융역량과 대응되는 학습(learning) 및 행동(behavior)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반응(reaction) 및 교육을 추진한 조직적 결과(results)를 포함하여 4단계(level) 평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Kirkpatrick and Kirkpatrick, 2007). 이홍재·권준이·차용진(2016)에 따르면 반응 평가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내용이나 강사, 시설, 일정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 또는 주관적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다. 학습평가는

지식이나 기술 증진 및 태도 변화 등을 문항설계 등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며, 행동 평가란 교육 후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자기 기술 또는 타인 관찰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평가는 해당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편익 또는 대상자에게 희망한 궁극적 변화 등의 최종 성과이다.

[그림1] Kirkpatrick 교육효과 평가 모형



OECD/INFE(2012)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주요 원칙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금융교육 영역에서 체계적인 효과 평가 모델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Kirkpatrick 모형은 금융역량 측정에 한정되어 있는 금융교육 효과 평가 방식을 확대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모형을 금융교육에 적용할 경우 금융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측정, 지식·기술·태도 등의 금융역량의 측정, 가시적인 주요 금융행동 변화의 측정 및 금융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웰빙이나 금융교육을 실시한 조직의 비용·편익 분석 등 보다 종합적인 금융교육의 효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등 분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Kirkpatrick 모형을 평가에 적용하고자 한다.

2-6.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관련 연구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시절의 금융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 과목을 편입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대학진학 전에는 본격적인 금융교육이나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김정현·최현자, 2011). 그러나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2019년 70.4%를 기록하여 다수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으로 우선 진학하고 있으므로, 사회 진출 전 삶에 필요한 금융내용을 체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대학을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생 때 형성된 재무지식과 재무행동은 성인의 그것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백은영·배미경·이승신, 2004; 김효정, 2005; 최현자·조혜진, 2011; Peng *et al.*, 2007) 교육의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학 내에는 상경계 학생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전공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양과목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극소수의 대학교만이 신용관리나 소비생활, 개인재무관리 등과 관련한 과목을 1~2개 정도 개설하고 있다. 대학 밖의 기관 또한 청소년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은퇴준비를 위한 일반성인 및 노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다수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많지 않다. 한편, 대학생 대상 교육이 참여가 자율적인 형태의 평생 교육과정으로 대학 밖의 기관에서 일반 성인교육과 동일하게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교육이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취업 부담이 있는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이 대학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대학생 금융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생의 금융역량 수준, 행태 특성, 재무적 특징 및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의 파악에 초점을 둔 기초 연구이다. 김민정^a·이희숙(2011)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재무특성과 경험,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유의한 금융이해력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월평균 용돈은 10~30만원이었고, 30~50만원인 경우도 33.5%였다. 또한 대부분 용돈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힘으로만 용돈을 마련하는 학생은 4.7%였다. 대부분 보통예금과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금은 33.9%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월소득이나 지출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77.5%였으나, 예산을 세우고 용돈기입장을 쓰는 학생은 각각 38.1%였다. 금융이해력 점수는 평균 66.6점이었으나 자금관리 이해 영역이 58.9점으로 다소 낮게 나왔고, 금융행동 면에서 정기적인 예산과 계획의 수립 여부, 비상금 보유 여부, 초과지출 여부, 차용경험 여부 등의 금융행동에 따라 유의미한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김시월(2011)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해 개발한 설문조사 문항을 이용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보다 18.9점이 높은 64.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신용카드 개수, 용돈 받는 방법에 따라 금융이해

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운호(2015)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20점 만점에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1.4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학교 금융교육이 친지와의 대화나 언론, 금융거래 경험 등 다른 학습경로보다 금융이해력 향상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장이나 카드의 사용은 금융이해력에 양(+)의 영향이 있지만 주식투자 경험은 의미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자·조혜진(2011)은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금융거래경험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보통예금통장, 펀드 및 주식투자, 체크 및 현금 카드 등 다양한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또한 금융이해력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대학 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금융 관련 수강과목의 수, 상경계열인지 여부, 부모학력인지 여부 등도 유의한 변수였다.

이운호(2018)는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자기과신의 실태를 연구하였는데,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서 분명한 자기과신이 나타났고, 반면 경제학 수업을 많이 듣고 가족과의 재무적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금융지식 수준과 자신감을 보임을 밝혀 금융이해력이 자기과신을 낮추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등이다. 김미리·김시월(20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내용 요구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점 만점에 4.21로 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정부 공공기관의 교육을 가장 원했고, 책을 통한 교육이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현장실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내용 면에서는 저축·신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보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낮게 나왔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무료여야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서인주·두경자(2003)는 대학생 대상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도 조사 및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가치관 정립,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와 보상방법, 합리적인 사용법, 신용불량에 관한 내용 및 신용카드 할부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백은영 외(2004)는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원하는 교육의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 예산수립 및 지출, 현금관리, 신용관리와 같은 분야 외에도 저축 및 투자, 은퇴계획, 부채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운영 · 황덕순(2006)은 대학생 대상 재무관리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재무목표의 설정과 계획화, 돈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53.7%의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6.5%가 소비자보호원(現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였다. 주기는 총 한 달에 걸쳐 한 회당 1시간씩 3~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재무교육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듣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후 14주 동안 실험 강의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 실시 전보다 후에 재무 지식, 재무태도, 재무행동 면에서 모두 평균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고 대응표본 t-test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초점이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희숙 · 문한나 · 이희찬 · 한미란(2005)은 대학생 대상 신용관리 중심의 소비자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학기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0개의 O/X 문항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거의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비생활에서의 주 구매여부 및 아르바이트 경험 등 본인이 직접 돈 관리에 참여할수록 교육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a 외(2012)는 주요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금융교육 및 개인재무관리 수업이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교육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100점 만점 기준, 1.95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소득의 이해, 자금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 지출과 신용 등 4개 영역 중 지출과 신용이 5.23점이 상승하여 교육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선 · 문정숙(2014)은 서울시내 재학중인 1~2학년 여자대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지식전달형, 효율적학습형, 학습자주도형 등 3가지 교수학습방법에 기반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개의 구분되는 집단에 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전국경제교육협의

회에서 개발한 금융지식 중심의 금융이해력 측정문항과 및 손실회피, 처분효과, 기준점효과 등 비합리적 투자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주도형 교육에서 8.85점으로 점수 상향도가 가장 높았고, 전달 정보를 범주화하고 노트하기 등을 제시한 효율적학습형 교육은 6.7점, 기본 용어 정리 등 지식전달형은 2.93점의 점수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며 대학생들은 교내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나 전문기관의 개입을 선호하고 투자나 부채상환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금융역량은 금융거래경험, 대학 유형, 학년, 상경계열 여부, 부모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본 프로그램의 수강생 만족도는 어떠한가?(반응)

연구문제 2. 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역량은 향상되었는가?(학습)

연구문제 3. 교육 후 수강생의 소비행동이 개선되었는가?(행동)

연구문제 4. 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역량 자기평가와 자기과신의 정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결과)

3-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금융감독원이 대학교에 강좌개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용금융 강좌⁹⁾ 수강생 중, 학기 초 및 말에 설문에 모두 참여한 2,05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16년 1학기 22개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18년 2학기에는 89개 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기본적으로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된 강좌에 교재, 강의 자료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였으나, 대학이 희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교수를 강사로 파견하였다. 파견 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금융전문가로 강의를 담당하기 전, 의무적으로 약 10주에 걸쳐 금융교육기법 및 강의윤리 등을 이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수강생은 금융감독원 교수가 직접 파견되어 진행된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였다. 조사 참여는 교수가 적극 참여를 권고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문에 응하였으며, 학기 초와 학기 말의 금융역량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므로 두 번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타 주요 변수로 설정한 설문 항목에 누락값이 최소화되도록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표2] 학기별 분석대상 수(명)

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2학기	총계
인원(명)	162	134	538	580	640	2,054

주) 2018년에는 2학기에만 설문조사를 실시

9)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강좌명이 '실용금융'이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강좌를 모두 '실용금융'이라 칭하였다. 이하 이와 같다.

[표3] 실용금융교육의 내용

2016~2017년 교재내용	2018년 이후 교재 내용
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 금융상품의 개요	3. 저축의 이해
4.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4. 금융투자의 이해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6. 부채관리	6. 신용관리
7. 신용관리	7. 부채관리
8.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8. 위험관리와 보험
9. 위험관리와 보험	9. 노후와 연금
	10. 재무설계의 기초(신설)
	11.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신설)
10.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12. 금융소비자보호(통합)
11.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교육내용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기존 대학생 금융교육 관련 연구(서인주·두경자, 2003; 백은영, 2004; 이희숙 외 2005; 정운영·황덕순, 2006)에서 대학생 금융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시한 신용, 부채, 저축, 투자 등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대학에서 금융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계가 정립되었다. 학계의 전문가들이 기술하고 금융감독원 실무진들이 검토하여 2015년에 최초 발간되었으며, 대학 현장에서 실용금융 수업을 담당한 교수들의 의견을 재조사하고 재무설계 내용 및 새로운 금융트렌드 등을 반영하는 등 편제를 개편하여 2018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한 학기 교육기간이 15~16주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기말고사 횟수를 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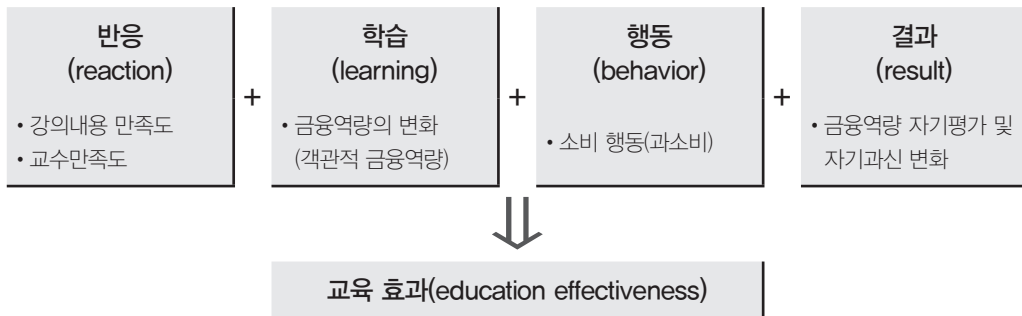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식¹⁰⁾이나, PPT, 동영상 등 각종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교수에 따라 주식모의투자 및 자신의 신용등급 확인 등의 실습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10) 금감원은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2017년 경험교육이론에 입각한 참여·혁신형 교수방법을 연구 용역하여 교수용지도서를 개발하였으나, 대학의 강의실 구조, 수강인원의 과다 등 현장의 상황적 한계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Kirkpatrick이 제시하였던 모형에 기반하여 실용금융교육의 효과를 4가지 단계에 맞춰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2] 실용금융교육 효과 평가 모형



우선 1단계인 반응(reaction) 항목은 실용금융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 중 기말에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의 강의내용 만족도와 교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 중 반복되거나 단순한 인사 등을 제외한 유의미한 내용은 일부 발췌하였다. 분석방법은 강의 만족도와 교수 만족도의 기술통계량을 살핀 후, 학기별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ANOVA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을 통해 다른 값을 찾아내었다.

2단계인 학습(learning) 항목에서는 2012년 금융감독원이 KDI와 공동개발한 30개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을 이용하여 수강 전과 후의 객관적인 금융역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¹¹⁾ 분석 영역은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자산관리(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위험과 보험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에 문항의 배치를 바꾸었으나 내용은 분석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문항의 형태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OX문항과 비교해 정보인지 및 활용, 문제 파악 역량 등이 더욱 요구된다. 현실의 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약관이나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구조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간 비교를 통해 금융거래를 결정해야 함을 고려할 때 금융역량을 보다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금감원은 2009년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2010년 대학생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면서 미국 점프스타트(Jump\$art Coalition) 개발 내용을 수정·변경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청소년 금융교육 표준안 및 OECD/PISA의 금융소양평가 요소에 맞추어 2012년에 수정·보완하였다.

[표4] 금융역량 측정 문항의 구성

내용	유형	주요주제
금융과 의사결정 (8문항)	지식	금리인상, 개인정보보호, 금융변동성, 생애주기, 금융악관, 금융전망
	태도	금융거래보호, 금융정보
수입과 지출관리 (7문항)	지식	세금, 가처분소득, 환전
	태도	생애주기
	기능	현금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 가계수지 균형
자산관리(저축·투자) (6문항)	지식	투자상식, 금융상품, 투자원칙, 예금자보호
	기능	이자, 금융상품 선택
신용과 부채 (5문항)	태도	대출 의사결정, 대출태도
	기능	학자금 대출, 신용등급 관리(2개)
위험과 보험 (4문항)	지식	사회보험, 보험의 이해
	기능	보험상품 선택, 노후대비

분석방법은 우선 학기별로 학기 초 및 말에 측정된 금융역량 수준의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2차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에서 금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학기 초 및 말의 금융역량의 변화가 유의한가를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학기 초 및 말에 측정된 금융역량 수준이며, 독립변수는 학기 초를 '0', 학기 말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실용금융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실용금융교육이 효과적인 경우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가 도출될 것이다.

$$Y = \alpha_0 + \alpha_1 \times \text{실용금융교육} + \alpha_2 X_2 + \cdots \alpha_{12} X_{12} + \epsilon$$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년, 대학 유형, 전공계열, 부모로부터의 교육 경험, 초·중·고 시절 금융교육 경험, 주요 금융거래 경험을 포함하였고 금융거래상품은 학자금 대출, 정기예·적금, 펀드, 주식, 신용카드 사용 경험 등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금융역량과 성별이 관련 없다는 보고도 있으나(Ludlum, Tilker, Ritter, Cowart, Xu and Smith, 2012), 다수의 연구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Guiso and Jappelli, 2008, Lusardi and Mitchell, 2008), 학년의 경우,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 and Volpe,

1998, 조혜진·장연주, 2015 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금융이해력이 낮게 나타나 1학년 여부인지만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대학생의 전공 또한 금융이해력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비경상계열 전공 학생들이 상경계열에 비해 낮은 금융역량 수준을 보여 왔으므로(Chen and Volpe, 1998) 상경계열 여부를 통제하였다. 한편, 대학 유형은 4년제 대학생들과 2·3년제 대학생들의 이해력 차이가 컸다는 선행연구(최현자·조혜진, 2011)를 반영하여 4년제와 2·3년제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였다.

사전적인 금융교육 경험은 금융역량과 상당한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기에(Chen and Volpe, 1998 등), 이를 반영하여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정도 및 초·중교 시절 경험한 금융교육의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금융거래경험도 금융역량과 관련이 높기에(최현자·조혜진, 2011), 5개 유형의 금융상품 사용 경험 유무를 포함시켰다(사용 1, 비사용 0). 실제 금융거래경험과 관련하여 8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보통예금과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사용중이었고, 기타 신용대출은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극히 적었다. 이에 구분의 의미가 없는 3가지 금융상품은 제외하였다.

3단계인 행동(behavior)에서는 대학생들이 저축이나 투자, 보험 가입 등 사회진출 후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행동이 아닌 대학생 시절,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가능한 과소비행동에 한하여 측정하였다. 과소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용돈의 초과지출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설문을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2단계의 학습 항목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학기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앞의 학습(learning) 단계의 금융역량 변화 분석과 동일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5] 소비행동 측정 문항

과소비	평소 용돈 등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 ~ 5 (거의 매달 초과)
-----	--

마지막으로 4단계 결과(result)에서는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원래 Kirkpatrick 모형에서 의미하는 결과는 해당 교육을 추진한 조직 차원의 이익으로 사기업의 경우 매출의 증대나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적인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다르기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 금융교육의 결과

항목에는 금융소비자의 재무복지의 증가, 혹은 재무 스트레스나 금융분쟁의 감소 등이 적절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에는 이 항목이 없어 차선으로 금융 자신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대리지표로 이용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항목은 재무복지 증진을 위한 재무관리 실천에 매우 필요한 기제이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저축·투자·대출 등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금융 거래에 대한 이해 및 실천능력을 금융이해력이라고 제시한 후, 자신의 금융이해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매우 높음(5) ~ 매우 낮음(1)’의 5점 리커드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점 처리하였다.

한편, de Meza, Irlenlusch and Reyniers (2010)는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이해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기과신을 부추기지 않는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교육 후에는 객관적 금융이해력뿐만 아니라 금융자신감으로도 해석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는데,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비교해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전과 후의 자기과신의 변화 정도를 살펴 자기평가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기과신 성향은 실제 보유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인지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Charupat, Deaves, and Lüders 2005)된다는 논리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 객관적인 역량 수준과 주관적 역량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여 측정하고 있어(반주일, 2013; 나혜림 외, 2014; 이운호, 2018; Bahndari and Deaves, 2006) 본 연구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나혜림 외(2014)와 이운호(2018)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였다. 나혜림 외(2014)는 펀드투자자의 자기과신 성향을 측정함에 있어 객관적 펀드이해력과 주관적 펀드이해력을 각각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자기과신 집단(주관적 高, 객관적 低), 고이해력 집단(주관적 高, 객관적 高), 저이해력 집단(주관적 低, 객관적 低), 과소평가 집단(주관적 低, 객관적 高)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운호(2018)는 우선 자신의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또래와 비교하여 3점(더 높다, 비슷하다, 낮다)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고, 객관적 금융이해력은 해당값의 ‘표준편차 $\times(\pm 0.5)$ ’ 범위를 평균집단으로 하여 3그룹으로 나누고 두 기준을 교차하여 총 9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고평가이고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저득점인 집단을 강한 자기과신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객관적 금융역량 또한 아래쪽에서부터 10%, 30%, 70%, 90%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¹²⁾ 자신이 속한 객관적 금융이해력 집단과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의 괴리 정도에 따라 강한 과신, 약한 과신, 적정, 약한 과소평가, 강한 과소평가로 다시 집단을 5개로 나누었으며, 교육 전과 후에 해당 집단의 비율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 실용금융교육이 자기과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과신 및 과소평가 구분

		금융역량 자기 평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객관적 금융 이해력	매우 낮음 하위 10%					강한 과신
	낮음 하위 10~30%				약한 과신	
	보통 중간 40%			적정		
	높음 상위 10~30%		약한 과소평가			
	매우 높음 상위 10%	강한 과소평가				

12) 이윤호(2018)은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표준편차×(±0.5)' 범위를 평균집단으로 하여 3그룹으로 구분하면서 그룹별 표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표본수 확보를 위해 다소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4-1. 분석변수의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6>와 같으며, 분석 대상의 수는 총 2,054명이나 항목별로 결측치가 다소 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1,100명(53.6%), 남학생이 949명(46.2)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453명(22.1%), 2학년이 536명(26.1%), 3학년이 461명(22.4%), 4학년이 598명(29.1%)으로 다소 고르게 분포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상경계열이 474명(23.1%)로 타 계열에 비해 비중이 높았으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실용금융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가 다니는 대학유형은 4년제가 1,755명(85.4%)으로 전문대학교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는 실제 실용금융교육 강좌가 개설된 전문대학이 4년제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금융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835명(40.7%)으로 10명 중 4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1회 이상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85명(4.1%)으로 매우 소수였다. 초·중·고 시절의 금융교육 경험 또한 ‘전혀 없음(45.0%)’이 거의 절반 가량이었으며 ‘한 두 차례 받았다’가 529명(2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매년 또는 2~3달에 한 번씩 등 정기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은 254명(11.8%)으로 10명 중 1명 꼴이었다.

금융거래경험은 다른 변수와 달리 실용금융교육을 받는 도중 바뀔 수 있어 학기 초과 말 값을 모두 <표6>에 반영하였는데,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서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경험이 약간 증가하였다. 대체로 정기에·적금은 절반 정도가 이용 경험이 있고, 펀드와 주식은 11~14% 정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 경험 또한 절반을 초과하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6]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	949 (46.3)	대학유형	전문대학	299 (14.6)	
	여	1,100 (53.7)		4년제	1,755 (85.4)	
학년	1학년	453 (22.1)	부모 금융 교육 경험	전혀 없음	835 (40.7)	
	2학년	536 (26.2)		한 번 정도	360 (17.5)	
	3학년	461 (22.5)		2~3회	500 (24.4)	
	4학년	598 (29.2)		몇 년에 한번	273 (13.3)	
전공	인문	343 (16.8)	초 · 중 · 고 금융교육 경험	매년 1회 이상	85 (4.1)	
	사회	232 (11.3)		전혀 없음	925 (45.0)	
	상경	474 (23.2)		한 두차례	529 (25.8)	
	교육	56 (2.7)		몇 년에 한번씩	356 (17.3)	
	공학	365 (17.8)		매년 1회 이상	196 (9.6)	
	자연	222 (10.8)		2~3달에 한 번 이상	48 (2.3)	
	의약	97 (4.7)	금융거래 경험	상품 종류	학기 초	학기 말
	예체능	191 (9.4)		학자금대출	338 (16.5)	338 (16.5)
	기타	67 (3.3)		정기에 · 적금	947 (46.1)	1017 (49.5)
		펀드		239 (11.6)	271 (13.2)	
		주식		229 (11.1)	290 (14.1)	
			신용카드	1,073 (52.2)	1,174 (57.2)	

4-2. 실용금융교육의 반응(reaction) 효과

Kirkpatrick 모형의 첫 단계로, 실용금융교육 수강생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강의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6점, 교수만족도는 4.21점을 기록하여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6년 1학기에는 3.76점으로 다소 낮았으나, 2016년 2학기에 크게 증가하여 이후 4.0이상의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각 평균값이 학기별로 유의하게 상이한지 살펴보고자 항목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두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F값이 도출되어 적어도 2개 이상의 평균값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Levene의 동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동질성이 유의하지 않아 Dunnett T3를 살펴보고, 강의내용 만족도 및 교수 만족도 모두에서 2016년 1학기과 그 외의 다른 학기 값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실용금융교육에 대한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강의내용 만족도	2016년 1학기 (a)	162	3.76	1.108	11.450***	a < b, c, d, e (Dunnett T3)
	2016년 2학기 (b)	134	4.28	.835		
	2017년 1학기 (c)	538	4.11	.878		
	2017년 2학기 (d)	578	4.22	.759		
	2018년 2학기 (e)	626	4.22	.837		
	합계	2,038	4.16	.860		
교수 만족도	2016년 1학기 (a)	162	3.89	1.081	8.716***	a < b, c, d, e (Dunnett T3)
	2016년 2학기 (b)	134	4.37	.873		
	2017년 1학기 (c)	538	4.14	.922		
	2017년 2학기 (d)	579	4.28	.801		
	2018년 2학기 (e)	626	4.26	.853		
	합계	2,039	4.21	.886		

*** p < .001

2016년 1학기는 실용금융교육을 처음 실시한 학기로, 대학교의 강의 환경 및 대학생들의 선호 등의 파악이 부족하여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수 대상 강의기법 연수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하였는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3.8, 2017.12.8)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이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4-3. 실용금융교육의 학습(learning) 효과

Kirkpatrick 모형의 두 번째 단계로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실용금융교육 전과 후의 객관적인 금융역량의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표7>과 같이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기 초보다 학기 말에 +3.55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6년 1학기는 오히려 점수가 -5.09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6년 2학기의 평균 점수는 +3.16점이 상승하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7년 1학기부터는 유의하게 학기 초에 비해 말의 객관적 금융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기를 거듭할수록 금융역량의 상승폭이 증가하였다.

[표8] 객관적 금융역량의 변화

구분(학생수, 명)	학기 초(a)	학기 말(b)	차이(b-a)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 체 (2,050)	61.83	65.38	3.55***	9.91	2.85	4.25
2016년 1학기 (161)	57.74	52.65	-5.09**	-3.43	-8.02	-2.16
2016년 2학기 (134)	63.58	66.74	3.16	1.38	-1.36	7.68
2017년 1학기 (538)	62.22	64.73	2.51***	4.14	1.32	3.71
2017년 2학기 (577)	63.06	68.07	5.01***	7.93	3.77	6.25
2018년 2학기 (640)	61.08	66.44	5.36***	9.37	4.23	6.48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등에서는 금융교육 외에 금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관련 변수를 통제하고도 실용금융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통제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용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교육경험과, 초·중·고 시절의 학교 교육경험간의 상관계수가 -.55로 다소 높게 나온 것만을 제외하면 모두 ± 0.1 이하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중공선성 지표인 VIF 또한 모든 변수에서 1.5이하로 도출되었다. <표8>에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전체 자료에서는 교육효과가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대응표본 t-test에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6년 1학기에는 오히려 교육효과가 음(-)의 값으로 도출되었으며 2016년 2학기에는 교육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17년 1학기 이후부터 유의한 양(+)의 교육효과가 계속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통제 변수 중에서 금융역량에 유의한 역량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항목을 살펴 보면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성별은 선행연구 등과 달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년, 전공계열, 대학 유형 등은 매우 유의하였다.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금융역량이 수준이 낮았고, 상경계열이 타 계열에 비해 높았으며, 4년제가 전문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로부터 금융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금융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된 반면, 초·중·고 시절 학교 금융교육 경험의 경우 오히려 음(-)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학교 금융교육이 금융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며,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여 명확한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경험과 관련하여서는 학자금

대출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정기에·적금, 주식투자 및 신용카드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금융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용금융교육이 학습 면에서 금융역량의 제고라는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고, 그 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영상 자료 및 강의기법 연수 등을 실시한 2017년부터 교육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 시각 자료 및 교수역량 등이 매우 중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9] 객관적 금융역량의 설명 변수

		표준화 계수 β					
		전체 (N=4,108)	2016년 1학기 (N= 324)	2016년 2학기 (N=268)	2017년 1학기 (N=1,076)	2017년 2학기 (N=1,160)	2018년 2학기 (N=1,280)
실용금융교육 (초 0, 말 1)		.106***	-.122*	.097	.081*	.176***	.165***
성별 (여 0, 남 1)		.012	-.117*	-.008	.017	-.048	.020
학년 (1학년 1, 기타 0)		-.052**	.021	-.005	-.178***	-.098**	-.038
전공계열 (상경 1, 기타 0)		.155***	.180**	.168*	.076*	.187***	.118***
대학유형 (4년제 1, 기타 0)		.068***	-.143*	.184**	.143***	.110***	.096***
부모 금융교육		.040*	.039	-.024	-.013	.021	.071*
초·중·고 금융교육		-.071***	-.069	-.094	-.008	-.022	-.068*
금융 거래 경험	학자금 대출	-.009	-.124*	-.010	.031	.017	.030
	정기에·적금	.072***	.005	.084	.082**	.064	.106
	펀드	.003	-.094	.079	.057	.036**	-.050***
	주식	.061***	.000	-.070	.035	.140***	.067*
	신용카드	.045**	.008	.026	.054	.013	.068*
F		25.10***	3.48***	2.12*	10.32***	14.98***	10.94***
adj-R ²		.066	.084	.048	.094	.13	.085

** $p < .05$, * $p < .01$, *** $p < .001$

4-4. 실용금융교육의 행동(behavior) 및 결과(result) 효과

Kirkpatrick 모형의 세 번째 단계로 과소비 행동을 살펴본 결과 <표9>와 같이 전체 자료에서 유의하게 과소비 행동이 감소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기별로 나누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오직 2017년 1학기에만 과소비 행동이 매우 유의하게 감소했고 다른 학기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앞의 객관적 금융역량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 <표10>과 같이 실용금융교육이 과소비 행동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7년 1학기만 분석할 경우 실용금융교육의 설명력이 -.458로 매우 높아져 학자금 대출 외에 유의한 변수가 없었음에도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adjust-R2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타 통제 변수 관련 특이할 점은 성별 항목의 계수가 음(-)으로 도출되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소비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과소비 행동을 많이 하며, 부모로부터의 금융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과소비 행동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시절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 또한 앞서 살펴본 객관적 금융역량과는 달리 음(-)의 영향을 미쳐 과소비행동 개선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정기에·적금 경험은 과소비 행동과 음(-)의 관계가 있지만 펀드 투자 및 신용카드 사용경험은 오히려 과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irkpatrick 모형의 네 번째 단계인 결과(result) 지표로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과신 성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9>에 우선 금융역량 자기 평가의 변화 정도를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정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5점을 만점으로 학기 초에는 2.16이었으나 학기 말에 2.63으로 +.47이 상승하였다. 학기별로는 2016년 1학기에는 자기평가 항목이 학기 초에 1회 설문되어 변화를 검증할 수 없었지만, 2016년 2학기 이후부터 매우 유의하게 주관적인 금융역량, 즉 자기평가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0>에서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인 금융역량 자기평가를 종속변수로 두고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설명변수 검증을 위해 앞서 사용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실용금융교육 실시 여부의 계수가 +.259로 나타나 실용금융교육이 학생들의 재무적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금융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경계열 학생들도 타 계열에 비해 자신의 금융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학 유형은 별 관련이 없었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금융교육 경험 및 초·중·고 시절의 학교 금융교육 경험도 자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기에·적금, 펀드, 주식, 신용카드 등과도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었다.

자기평가의 전반적인 상승이 객관적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과신의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가 분석하였다. 객관적 금융역량은 매우 낮는데 자신감만 높아지는 등 실제 역량과 자기가 인식하는 역량에 괴리가 발생한다면 좋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금융역량의 수준과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수준이 불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강한 과신, 약한 과신, 적정평가, 약한 과소평가, 강한 과소평가' 등 5개의 그룹으로 수강생을 구분한 후, 학기 초와 말에 각 그룹에 속하는 학생 수와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10] 과소비 행동 및 금융역량 자기 평가의 변화

구분(학생수, 명)	과소비 행동				금융역량 자기평가			
	학기 초 (a)	학기 말 (b)	차이 (b-a)	t	학기 초 (a)	학기 말 (b)	차이 (b-a)	t
전 체 (2,035)	2.76	2.49	-.27***	-8.403	2.16	2.63	.47***	23.3
2016년 1학기 (161)	2.74	2.690	-.05	-.554	1.86	-	-	-
2016년 2학기 (134)	3.71	3.59	-.12	-1.175	2.16	2.66	.50***	5.73
2017년 1학기 (538)	3.55	2.54	-1.01***	-12.36	2.14	2.71	.57***	14.35
2017년 2학기 (562)	2.52	2.61	.09	1.95	2.13	2.64	.51***	12.18
2018년 2학기 (640)	2.10	2.07	-.03	-.80	2.27	2.73	.47***	13.33

*** $p < .001$

[표11] 과소비행동 및 금융역량 자기평가의 설명변수

종속변수		과소비행동		금융역량 자기평가 (N=3,784)
		전체 (N=4,108)	2017년 1학기 (N=1,076)	
실용금융교육(초 0, 말 1)		-.105***	-.458***	.259***
성별(여 0, 남 1)		-.031*	.010	.071***
학년(1학년 1, 기타 0)		.005**	.018	-.018
전공계열(상경 1, 기타 0)		-.022	-.007	.141***
대학유형(4년제 1, 기타 0)		.023	.015	-.007
부모 금융교육		-.118***	-.008	.049**
초 · 중 · 고 금융교육		-.035*	.026	.057**
금융 거래 경험	학자금 대출	.024	-.085**	.022
	정기예 · 적금	-.055**	.031	.096***
	펀드	.034*	.013	.057***
	주식	-.026	-.024	.136***
	신용카드	.055***	.005	.032*
F		15.73***	20.58***	65.99**
adj-R ²		.042	.18	.17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표11>과 같이 ‘강한 과신’ 그룹의 숫자는 변화가 없었으나 ‘약한 과신’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해당 그룹에 속한 학생 수가 93명이 증가하였고 구성 비율 또한 4.4% 증가하였다. 반면, 나혜림 외(2014)는 자기과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금융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 또한 여러 재무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강한 과소평가 그룹 및 약한 과소평가 그룹의 학생 수와 비율이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용금융교육은 재무 자신감으로도 해석되는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높인다는 점에서 교육효과가 있으며, 다소 자기 과신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고 과소평가가 경향도 동시에 낮추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12]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과신 또는 과소평가 현황

학생수, (%)	강한 과소평가	약한 과소평가	적정 평가	약한 과신	강한 과신
학기 초	122	1,099	525	213	13
	6.2%	55.7%	26.6%	10.8%	.7%
학기말	112	1004	574	306	13
	5.6%	50.0%	28.6%	15.2%	.6%
차이	-10	-95	+49	+93	-
	-.6%	-5.7%	+2%	+4.4%	.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만간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대하게 추진될 금융교육의 효과 증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감원에서 2016년 1학기부터 시행중인 실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제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누적되어야 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효과, 특히 직무능력 교육 효과 분석에 많이 활용되어 온 Kirkpatrick 모형인 ‘반응(reaction), 학습(learning), 행동(behavior), 결과(result)’ 항목을 기준으로 실용금융교육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학기 초와 말에 실용금융교육 관련 설문에 모두 참여한 총 2,054명이다. 실용금융 교육은 1학기에 총 15~16주간 대학 수업에 맞춰 구성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지만 PPT, 동영상, 리플렛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되었다.

먼저 실용금융교육의 ‘반응 효과’를 살펴보면 강의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6, 교수 만족도가 4.26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학기별로는 2016년 1학기에 다소 낮았으나 이후 유의하게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인 ‘학습 효과’는 주로 지식·태도·기능 등이 포함된 역량 수준의 변화로 측정되기에, 2012년 금융감독원과 KDI가 공동개발한 금융이해력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객

관적 금융역량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전체적으로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3.55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실용금융교육이 막 도입된 2016년 1학기에는 객관적 금융역량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일정 궤도에 오른 201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고, 2018년 2학기에는 상승폭이 +5.36점에 이르렀다. 또한 금융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학년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실용금융교육의 효과를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에서도 교육효과가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어 실용금융교육이 객관적 금융역량의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 번째 항목인 ‘행동 효과’는 소득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대학생들의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한 과소비행동의 감소로 측정하였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전체적으로는 과소비 행동이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교육효과가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실용금융교육이 소비행동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학기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2017년 1학기에만 유의한 변화가 있어 실용금융교육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효과’는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우선 살펴보고, 객관적 금융역량과의 괴리 정도를 따져 자기과신 성향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5점 만점 기준,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47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는 상당 부분 실용금융교육의 영향임이 검증되었다. 다만, 자기과신 성향과 관련하여 ‘강한 과신, 약한 과신, 적정평가, 약한 과소평가, 강한 과소평가’ 그룹으로 객관적 역량과의 괴리 정도를 구분하였을 때, ‘약한 자기과신’ 성향 그룹의 비중이 교육 후에 약간 증가하여 객관적 금융역량의 증가보다 자기평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학생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 재무문제 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 ‘강한 과소평가 및 약한 과소평가’ 그룹의 비율도 감소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Kirkpatrick 모형으로 살펴본 실용금융교육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교육 효과가 검증된 실용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 대상 교육은 학교 밖에서 진행시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 학교 내 학점 이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내에는 금융교육과 경쟁하는 무수한 과목들이 존재하여 대학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 도입하지 않으면 실시되기가 매우 어렵다. 실용금융교육은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 소양적 성격이 있으므로, 전공과목보다는 모든 전공계열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기초교양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교양교과목은 기초 학문 분야의 교과목으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제생활 분야나 공공생활, 법률생활 등의 응용학문이나 실용학문 관련 내용의 교양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금융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 대학의 교과목 편성 사정을 잘 파악하고 교양과목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괴리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이수진(2010)은 초등학교 금융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팹리스(Fab-less) 형태의 금융교육 클러스터(Cluster) 운영을 제안하였는데, 기업이 생산라인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형태로 다른 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축하듯이 금융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는 설계의 역할만 맡고 관련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과 협업하여 금융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용금융교육은 시행된 지 불과 3년이 조금 넘는 관계로 대학교 및 기타 협력이 가능한 기관 등과의 역할 분담 등의 모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용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를 통한 금융교육과 초·중·고 시절의 금융교육 등 사전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커리큘럼의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실용금융교육은 소비행동 변화에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형성된 행동 습관이 비교적 단기간인 1학기 교육으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 및 초·중·고 시절의 학교금융교육 경험의 빈도는 과소비 행동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반복적 학습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의 경우 이의선·문정숙(2014)은 학습자 주도형 금융교육이 다른 방식에 비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그룹 토론, 실습 등을 중심으로 한 경험 중심의 교육은 대학 현장의 강의실 환경 및 수강생 규모 등 제반 시설과 경험 중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역량 등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양적인 금융교육 실적에 집중하기 보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대표성 있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효과의 평가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Kirkpatrick의 모형을 금융교육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애초 본 모형을 전제로 측정 변수가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모형 적합성을 고려한 측정 도구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우선 반응 항목의 경우 강의내용이나 교수만족도에 대한 단일문항

이 아닌 강의실 환경이나 교육 방법 및 매체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소통방식, 교수기법 등에 대한 만족도 등 좀 더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2단계 학습의 금융역량 문항 또한 최근의 행동경제학적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능적·기술적 기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습관 등 무의식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행동의 경우에도 올바른 재무행동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예산세우기, 가계부 쓰기, 저축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 지표를 측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4단계 결과 항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차선택으로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과신의 변화 정도를 사용하였으나 추진 조직이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같이 공공기관이 추진한 금융교육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무만족도, 객관적 또는 주관적 재무복지 증진, 재무 스트레스나 금융소비자불만 및 금융소외의 감소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기구인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와 은행연합회인 CBA(Canadian Bankers Association), 민간단체인 Prosper Canada가 협동하여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구인 「Financial Literacy Outcome Evaluation Tool」을 2016년에 개발하였다. 교육 효과의 평가가 금융교육 추진의 필수 요소를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개별 기관들이 자신이 추진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지표를 설정하고 알맞은 문항을 뽑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해당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이에 평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나 기관은 본 도구를 통해 자신이 교육을 수행하는 대상과 내용,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평가 문항을 뽑아낼 수 있다. 또한 Financial Literacy Evaluation Toolkit을 통해 ‘평가설계, 기초자료 수집, 결과의 파악, 자료분석’ 등 4단계에 걸쳐 교육 추진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자세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되 관련 기관들이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부분까지 고려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13) <http://outcomeeval.org/>

14) <http://prosperscanada.org/Resources/Financial-Literacy-Evaluation-Toolkit.aspx>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제그룹을 설정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점, 설문참여가 자발성에 기초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택 편이가 일어나 실제 효과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금융역량이나 소비행동, 금융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 대해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소득수준 등의 기타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분석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구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초로 Kirkpatrick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역량 항목에 한정되어 있던 금융교육의 효과 평가 방식을 반응, 행동, 결과 등으로 확장하여 다각도의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권인탁, 2017, 퇴직예정자의 은퇴기대와 노후 재무만족도 예측의 관계에서 퇴직준비 및 재무교육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제25권 제4호, 171 · 190 ·
- 금융위원회, 2013, 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보도자료, (9.4.)
- 금융감독원, 2018, 2018 연차보고서
- _____, 2017, 대학생, ‘청춘드라마’로 금융지식 배운다. 보도자료, (3.8.)
- _____, 2017, 대학생 금융교육을 위한 참여-혁신형 실용금융 교수용 지도서 개발 및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12.8.)
- 금감원 · 한국은행, 2017,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1.23)
- _____, 2019,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1.28)
- 김자봉 · 김정한, 2017,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 과제, KIF금융리포트 2017년 제5호
- 김민정a · 이희숙, 2011, 대학생의 재무경험과 재무관리행동에 따른 금융이해력, 생활과학 연구논총 제15권 제1호, 149 · 167 ·
- 김민정a · 이희숙 · 김효심 · 박민주(2012), 개인재무관리 관련 교양과목의 대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에 대한 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8권 제4호, 71 · 91 ·
- 김시월, 2015,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소비와 저축변화에 관한 연구 - 부채 유무 집단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1호, 81 · 106 ·
- 김정현 · 최현자, 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권 제3호, 1 · 36.
- 김효정, 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7호, 79 · 91.
- 나혜림 · 조혜진 · 최현자, 2014, 금융소비자의 펀드투자이해력에 있어서 자기과신과 과소평가의 결정요인 및 펀드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7권 제3호, 203 · 232.

- 노혜민 · 손상희, 2017, 청년층 소비자의 신용등급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1 · 27
- 박상민 · 허경옥, 2012,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가치, 소비행동, 소비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5권 3호, 139 · 157.
- 박종옥, 2015, 투자자교육을 받은 펀드투자자의 특성과 교육효과, 소비문화연구, 제18권 제1호, 59 · 75
- 박창균 · 연태훈 · 허석균, 2016, 가계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4권 제3호, 55 · 83.
- 반주일, 2013, 투자자특성, 금융이해력, 펀드투자행태에 관한 연구: 펀드투자자 설문조사를 통한 검증,” 재무관리연구, 제30권 제4호, 1 · 37.
- 백은영 · 배미경 · 이승신, 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8호, 219 · 233.
- 보험연구원, 2010, 금융소비자교육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안수현 · 곽수현, 2013, 각국의 금융교육 법제,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181 · 199.
- 안창희 · 정순희, 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2권 제2호, 21 · 41.
- 오종윤 · 최현자 (2010). 재무설계를 통한 재무복지의 향상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3권 제2호, 1 · 18.
- 이의선 · 문정숙, 2014, 금융교육프로그램이 금융역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41 · 270.
- 이윤희, 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비교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91 · 122.
- _____, 2016, 객관적 · 주관적 금융 이해력이 자금 관리에 대한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95 · 121.
- _____, 2018,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서의 과신, 시민교육연구, 제50권 제2호, 173 · 158.
- 이성림, 2005, 과소비, 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 과소비, 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73 · 95.

- 이소연 · 성경희 · 김재근, 2009, PISA 금융소양 평가 도입의 주요 쟁점과 경제교육에서의 기대효과 탐색, 열린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49 · 70.
- 이수진, 2010, 팹리스(Fab-less)형태의 금융교육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통한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방향성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49 · 60
- 이희숙 · 문한나 · 이희란 · 한미란, 2005, 대학생의 소비자재무관리 교육의 효과, 생활과학 논문집, 제9권 제2호, 101 · 121.
- 이홍재 · 권준이 · 차용진, 2016, Kirkpatrick 모형을 적용한 공무원 교육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9권 제1호 165 · 189.
- 서인주 · 두경자, 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제41권 제12호, 117 · 132.
- 성영애 · 양세정 · 이희숙 · 차경옥 · 최현자, 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권 제1호, 21 · 39.
- 정운영 · 황덕순, 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 회지, 제15권 제6호, 999 · 1014.
- 조지민 · 천규승 · 김경모, 2014, PISA 2012 금융이해력 평가와 한국의 금융관련 학교경제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제46권 제4호, 177 · 205.
- 조혜진 · 김민정b · 장연주 · 최현자 · 이지영, 2015,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코칭 (Coaching)의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4호, 59 · 94.
- 조혜진 · 서지원, 2017,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의 현황 및 과제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학회지, 제21권 제1호, 45 · 63.
- 조혜진 · 장연주,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비교 연구 : 목표설정(goal setting), 계획(planning), 자기과신(overconfidence)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18권 제3호, 199 · 222.
- 천규승, 2010,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한국경제포럼, 제3권 4호, 73 · 92.
- 최윤나, 201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학위논문 석사)

- 최현자 · 김정현, 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 : 일반소비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3호, 83 · 105.
- 최현자 · 조혜진, 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2권 제4호, 55 · 75.
- 최현자 · 최은진, 2005,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6권 제3호, 109 · 133.
- 한지형 · 최현자, 2013, 사회초년생의 금융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6권 제3호, 81p · 118.
- 허경옥, 2019, 가계재무관리자의 가계재무관리능력, 재무관리 자신감이 공격적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7 · 47.
- 허경옥 · 김숙, 2018, 가계경제부담, 재무관리 자신감 및 가계재무만족 간의 구조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149 · 173.
- 홍은실, 2005, 중, 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5호, 103 · 121.
- 한국은행, 2013,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보도자료, (1.21.)
- Anderson, S. G., M. Zhan, and J. Scott, 2004, Targeting financial management training at low income audienc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8, 167-177
- Atkinson, A. and F. Messy, 2013, Promoting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ancial Education: OECD/INFE Evidence, Policies and Practice,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34, <http://dx.doi.org/10.1787/5k3xz6m88smp-en>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359-373.
- Barber, B. M., and T. Odean, 2000, Trading is hazardous to your wealth: The common stock investment performance of individual investors, The Journal of Finance, 55, 773-806.

- Bernheim, B. D. 1998, Financial Illiteracy,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in O.S. Mitchell and S.J. Shieber (ed.), 2010, Living with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Remaking Responsibility for Retire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38-68.
- Bernheim, B. D., D.M. Garrett, and D. Maki, 2001,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 435-465.
- Bhandari, G., and R. Deaves, 2006, The demographics of overconfidence, The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7, 5-11.
- Charupat, N., R. Deaves, and E. Lüders, 2005, Knowledge vs. Knowledge Perception: Implic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Journal of Personal Finance, 4, 50-61
- Chen, H., and R.P. Volpe,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Services Review, 7 107-128.
- de Meza, D., B. Irlenbusch, and , D. Reyniers, 2008, Financial capability: A behavioural economics perspective. Consumer Research, 69
- Guiso, L. and T. Jappelli, 2008, Financial literacy and portfolio choice, EUI Working Papers(ECO2008/31)
- Kahneman, D., 2012, Thinking, Fast and Slow, Penguin
- Kirkpatrick, D.L. and J.D. Kirkpatrick, 2008,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San Francisco
- Ludlum, M., K. Tilker, D. Ritter, T. Cowart, W. Xu, and B.C. Smith, 2012, Financial literacy and credit cards: A multi campus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3, 25-33.
- Lusardi A., and O. S. Mitchell, 2007,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reparedn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Business Economics, 42, 35-44
- _____, 2008, Planning and Financial Literacy: How Do Women 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98, 413-430.

- Lewis, S. and F. Messy, 2012, Financial Education, Savings and Investments: An Overview,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22, <http://dx.doi.org/10.1787/5k94gxrw760v-en>
- Money Advice Service(MAS), 2018, Financial Capability Survey 2018 - Survey technical report.
- Peng, T.M., S. Bartholomae, J.J. Fox and G. Cravener, 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urses, Journal of Family Economic Issues, 28, 265-284.
- Sheth, J.N., B.I. Newman and B.L. Gross,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 159-170
- Walstad, W.B., K. Rebeck, and .A. MacDonald, 2010,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Knowledg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4, 336-357.
- Willis, L. E., 2008, Against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Iowa Law Review, 94.
- OECD, 2005,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 OECD/INFE, 2012, High-level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mes
- _____, 2015a,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OECD/INFE Policy Handbook.
- _____, 2015b, 2015 OECD/INFE Toolkit for Mear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 Tennyson, S. and C. Nguyen, 2001. State Curriculum Mandates and Student knowledge of Personal Financ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 241-262.

A Study on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al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Personal Practical finance using the Kirkpatrick Four-Level Training Evaluation Model

Ko In-mook^{*}, Kang Ji-young^{**}

ABSTRACT

In order to implement financial education policies effectively, the cumulative effor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financial education program is essential.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led financi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personal practical finance using the Kirkpatrick Four-Level Training Evaluation Model that is composed of four levels: reaction, learning, behavior, and result.

Firstly, the reaction to the training is so positive that the satisfaction of lecture contents was 4.16 out of 5 and the satisfaction of professor was 4.26. The second degree, learning, shows a +3.55 point increase in financial capability after the education. It also finds out that the program is significantly effective to develop the financial capability of college students, holding all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constant. Thirdly, behavior measures that over-consumption behavior generally declined after the education, but the impa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behavior is limit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17. Lastly, the result level, a self-assessment of financial literacy has shifted to the positive, but some participants showed a slight increase in self-confidence after the program. However the program has made overall a desirable change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who underestimated their financial literacy also has decreased.

* Keywords : personal practical finance, financial education, Kirkpatrick Model, effect evaluation in education, college student

* JEL : A23, G53, I21

* Executive Director,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 Senior Manage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e-mail : epistoa@naver.com)